

말라위 소식 (강요섭 목사)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에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곁을 떠나 온 지 벌써 4 주간이 지났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인사 드리지 못함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한 주택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1 주일이 넘도록 Synod 에서 운영하는 conference center 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과거에 10 년간 살았던 Zomba 에 저렴한 주택이 있어서 복잡하고 security 가 확실하지 않은 Blantyre 보다 좋겠다고 여겨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50 여 마일 운전을 해서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많이 익숙한 고장이어서 안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Blantyre 대학교의 신학부는 석사과정 학생 7 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고 저는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하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한 학생은 5 시간 미니버스나 버스로 와야 하는 먼 거리에서 수요일 새벽 4 시에 출발해서 7 시 30 분에 시작하는 강의시간에 맞추어 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목회하는 목사들이기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아는 사람들의 집에 임시 유하는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대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도 없고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들도 아직

구비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오면서 가지고 온 책들을 일 부분 씩 복사하여 읽게 하고 주로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들은 Blantyre 에서 강의하고 다른 이들은 좀바 신학교에서 목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관복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4 월 말부터 1 주일간 창립 40 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1990 년부터 10 년간 강의한 곳이지요. 그때 공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학장으로, 그리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 여년 전과 비교하면 이 나라의 경제사정이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된 양상을 봅니다. 전기사정은 아주 악화되어 매일 12 시간 넘게 정전이 됩니다.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폐차처분을 해야 하는 고물 자동차들과 트럭들이 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자동차 운행에 어려움을 줍니다.

4 주가 지나면서 전기 없이 지내고 복잡한 거리 운전하며 지내는 일이 제법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에게서 격려를 받으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이 나라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매일 자신에게 타이르며 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헌금을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5 월 말 학기가 마치는 대로 귀국해서 여러분 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간단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주님의 새 생명과 소망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말라위 좀바에서

교제 강요섭, 한라 드림